

3/24/24

설교 제목: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21 장 1-11 절

- (마 2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마 21: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향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마 21: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 21: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마 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절관주** 사 62:11, 슥 9:9
(마 21: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마 21: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절관주** 왕하 9:13
(마 21: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절관주** 레 23:40, 요 12:13, 시 118:25, 마 22:42, 막 12:35
(마 2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절관주** 막 11:15, 눅 19:45, 요 12:13
(마 21: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마 21: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3 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무리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경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3 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이미 세 번에 걸쳐 예고한 대로 수난 곧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 (마 2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 (마 21: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 (마 21: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 (마 21: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 (마 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 (마 21: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 (마 21: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의 예언 말씀을 기억하게 해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구약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 (슌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까지는 숨겨왔지만 이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 구속 사역이 임박해 왔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에게 세속적인 통치자들이 전쟁과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반해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당신이 평강과 겸손과 섬김의 왕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무리들은 자신들의 겹옷과 나뭇 가지를 길에 펴고 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나선 무리들과 본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 무리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자 마태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 21: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걸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마 2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환호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환호가 얼마 안가 곧 분노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왕 때와 같이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줄 세상적인 메시아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큰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200 만명에서 300 만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산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출현으로 온 성이 소동하니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큰 소동을 일으키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묻습니다.

(마 21: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마 21: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에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의 대답 속에는 결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천한 곳인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바아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저를 메시아라고 받들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강한 부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이해했을 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를 뜻하는 '예루'와 평화를 뜻하는 '살렘'의 합성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평화로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거기에 성전을 세운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타민족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정대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대신 '예로솔루마'라고 불렀습니다.

'솔루마'는 '평화라고?' '평화, 웃기지마!'라는 빈정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웃기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본책의 헬라어 원본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헬라어로 '예로솔루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명은 원래 이름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통례인데 이례적으로 헬라어로 바꾸어 '예로솔루마'라고 기록한데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위선과 거짓,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자 마태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로솔루마'라고 기록한 이유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일입니다.

(마 21: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마 21: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당시 성전은 제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며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뒤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이권 개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팔고 하는 상인들을 내쫓고 돈을 환전하며 폭리를 취하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라고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소를 통해 평화와 거룩함으로 위장된 예루살렘의 허상을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외양 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실상은 기득권자들의 다툼의 소리로 가득한 '예로솔루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주일)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위장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앞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말라 버리게 하심으로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은 썩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과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흠과 허물이 많은 '예로솔루마'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로솔루마'를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로솔루마'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의 모습은 분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호산나' 찬양의 환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겹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모습은 침 뱉음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모습은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듯하나 실제 모습은 '예로솔루마'였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며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로솔루마의 모습인지 말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누구였을까요?

세상의 지위에 연연하여 소신껏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대중의 눈치를 살피 판결을 내린 빌라도 총독이었을까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악과 죄를 숨기고 군중들을 부추겨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군중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인한 역할을 했던 로마 병사였을까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님으로 섬기며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자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 숨어버린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지켜본 몇 명의 여인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지켜본 몇 명의 여인들을 빼고 모두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그토록 환영했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분노하여 바로 태도를 바꾸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의미의 '호산나'를 외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까?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 자녀들의 성공?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외치는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무엇이릅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꼭 받아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이 다인줄 알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삽니다.
이런 인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낳고 천한 이땅에 내려 보내 죽게 하셨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피 속에는 아담이 지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가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만드신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인간을 대신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죄값을 치루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의 궁전을 마다하고 낮고 천한 이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실 권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값없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죽게 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이어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십자가 수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 이기심을 위한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경배의 찬양인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부담을 가졌으면
합니다.